

KIA 이호민 “1군 마운드 압박감 재미있다”



KIA ‘루키’ 이호민이 전반기에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발전된 후반기를 준비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6월 17일 1군 데뷔 후 9경기 10.1이닝 던지며 1승
“집중해서 좋은 감 찾아 후반기 선발승 하고 싶어”

“힘든 것마저도 재미있다”
는 루키 이호민의 1군 도전기는 후반기에도 계속된다.

KIA 타이거즈 마운드에는 매년 눈길 끄는 선수들이 등장하고 있다. 올 시즌에는 2년 차 성영탁과 함께 이호민, 김태형이 프로 데뷔전을 치르면서 팬들을 웃게 했다.

이호민은 전반기 9경기에 나와 10.1이닝을 던지면서 2.61의 평균자책점으로 1승을 기록했다.

신인답지 않은 집착한 모습으로 이름을 알린 이호민은 전반기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후반기 더 많은 것을 얻겠다는 각오다.

이호민은 “생각보다 모든 게 빨리 지나갔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전반기가 지나갔다. 전반기에 부족한 게 많았다고 생각한다. 코치님들도 부족한 부분들 피드백해 주신다. 그 부분들을 빨리 보완해야 원래 던지는 대로 던져질 것 같다.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노력해서 내 것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전반기를 평가했다.

이호민은 ‘내 폼’을 찾는 데 우선 집중하고 있다. 한화 정우주와 함께 전주고 마운드를 이끌었던 이호민은 입단 후 어깨가 좋지 않아 쉬어가는 시간을 보냈다. 완벽한 몸상태로 프로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재활 과정을 거치면서 몸상태는 완벽하게 회복했지만 아직 ‘느낌’이 완벽하지는 않다.

이호민은 “어깨가 안 좋고 나서 던지는 대로 안 나오는 느낌이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다. 아팠던 게 몸에 밴 것 같아서 빨리 고쳐야 할 것 같다”며 “큰 것은 아니지만 작은 것인데 작은 게 쌓이고 쌓이면 커진다. 작은 것부터 고쳐야 좋아진다. 내 폼을 찾는 게 우선이다”고 이야기했다.

또 “캐치볼 할 때 최대한 빨리 찾아야 시합 때 나오는 거니까 캐치볼부터 집중해서 해야 할 것 같다”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집중해서 좋은 감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호민은 6월 17일 KT를 상대로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자신의 프로 첫 상대는 강력한 신인왕 후보

인 ‘괴물’ 안현민이었다. KBO 미래들의 맞대결로 팬들의 관심이 쏠렸던 승부였지만 정작 이호민은 1군 무대의 긴장감 속 자신의 첫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공을 던졌다.

“지금은 전광판도 보고, 타자가 누구인지, 타순도 보고 있다”며 웃은 이호민은 “전반기를 하면서 크게 흔들리지 않은 것은 좋았다. 처음인데 안 떨고 던진 것은 괜찮았던 것 같다. 1군 마운드에서 서면 생각부터 달라진다. 위협감, 압박감이 크지만 그걸 이겨내야 선수가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기를 하면서 배운 것보다는 느낀 게 많다. 구위가 약하고, 컨트롤도 아직은 내가 던지는 컨트롤이 아닌 것 같다. 마운드에서 타자와 70%, 나와 30%를 싸운 느낌이다. 그게 제일 아쉽다. 타자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100%를 쏟지 못한 게 아쉽다”며 “전반기 때 느낀 걸 빨리 고쳐서 후반기 때 잘해서 계속 1군에 있고 싶다”고 말했다.

좋았던 순간도, 아쉬웠던 순간도 ‘루키’ 이호민에게는 성장의 동력이다 동기 부여가 됐다.

이호민은 “1군에서는 엄청 힘들어도, 힘든 것 자체가 재미있다. 1군에서 계속 있고 싶다”며 “후반기에 기회가 된다면 선발승 해보고 싶고, KIA 타이거즈 1군 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아사니, EPL 뉴캐슬전 뒀다

‘쿠팡플레이 시리즈’ 팀K리그 ‘팬 일레븐’ 포함…이정호 감독은 코치로

광주FC의 ‘에이스’ 아사니가 이정호 감독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소속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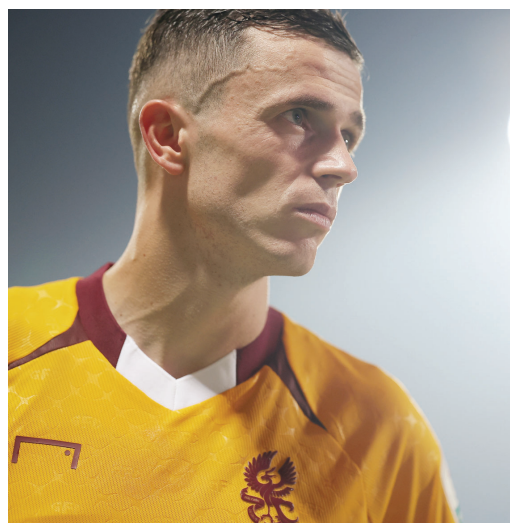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오는 30일 열리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에 나설 팀 K리그 ‘팬 일레븐’ 명단을 발표했다.

‘팬 일레븐’은 K리그1 12개 구단이 제출한 팀별 베스트11을 바탕으로 팬들이 직접 선정했다.

연맹 기술위원회(TSG)가 선정한 포지션별 4배수 후보 중 공격수 3명, 미드필더 3명, 수비수 4명, 골키퍼 1명이 팬투표를 통해 최종 선발됐다.

아사니는 공격수(FW) 부문에서 K리그1 득점 선두 전진우(전북·2만 2397표)와 함께 이동경(김천·1만9220표)에 이어 1만7980표를 얻어 ‘팬 일레븐’이 됐다.

‘원발의 달인’ 아사니는 올 시즌 18경기에서 6골 2도움을 올리며 팀 내 최다 공격포인트를 만드는 등 K리그를 대표하는 공격수다. ACLE 10경기에



광주FC ‘에이스’ 아사니

서도 9골을 터트리면서 국제 무대에서도 이름을 알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양민혁

토트넘 양민혁 “손흥민 그리웠어요”

시즌 개막 앞두고 나란히 팀 훈련

손흥민과 양민혁(이상 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새 시즌 개막을 앞두고 나란히 팀 훈련에 나섰다.

토트넘 구단은 14일(이하 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프리시즌 훈련을 시작한 지 10일이 지났다. 첫 프리시즌 경기가 임박했다. 이번 주 토요일 레딩과 첫 경기를 치른다”며 훈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번 훈련 사진에는 반가운 얼굴이 포착됐다. 지난 12월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캡틴’ 손흥민이었다.

국내 일정을 마친 손흥민은 팀 훈련 합류를 위해 지난 10일 한국을 떠났고, 토트넘 구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손흥민의 사진과 함께 ‘잘 돌아왔어 쏘니!’(Welcome back, Sonny!)라는 글을

남겼다.

이날 훈련에선 지난 6일부터 훈련에 합류한 양민혁과 손흥민이 함께 훈련을 치러 국내 팬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7월 K리그1 강원FC를 떠나 토트넘으로 이적한 양민혁은 올해 1월 토트넘에 합류한 뒤 EPL에 데뷔하지 못한 채 퀸스파크 레인저스(QPR)로 임대돼 14경기에서 2골을 터트리는 활약을 펼치고 시즌 종료와 함께 토트넘으로 복귀했다.

최근 다양한 이적설에 휩싸인 손흥민도 개인 일정을 마치고 팀 훈련에 합류했고, 두 선수는 새 시즌을 앞두고 훈련에서 나란히 땀방울을 흘렸다.

양민혁은 토트넘 공식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장 그리웠던 팀원’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손흥민이 그리웠어요”(I miss sonny)라며 대선배와의 새 시즌 호흡을 기대했다. /연합뉴스

전남 임찬울·최정원·최봉진 K리그2 20R ‘베스트 11’

전남드래곤즈의 임찬울·최정원·최봉진이 K리그2 20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전남은 지난 12일 경남FC와의 홈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두며 연승에 성공했다. 이날 경기에서 임찬울은 전반 13분 알베르피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로 경남 골대를 갈랐다. 시즌 1호골이다.

수비수 최정원과 골키퍼 최봉진은 경남의 거센 공세를 저지하고 1-0승리를 합작하면서 ‘베스트 11’이 됐다.

경남이 두 차례 전남 골망을 흔들기는 했지만 슈팅 직전 나온 파울과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연달아 무효골이 기록됐다.

20라운드 MVP는 화성FC 박주영의 차지가 됐다. 박주영은 12월 천안중합운동장에서 열린 천안 시티FC와의 원정경기에서 멀티도움을 기록하면서 팀의 3-2 승리를 이끌었다.

박주영은 전반 23분 최준혁의 선제골을 도왔고, 후반 시작 직후에는 최명희의 추가골에 기여했다.

베스트 매치는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 충남아산FC의 경기가 선정됐다.

전반 26분 바로우의 골로 리드를 잡은 인천은 전반 33분 충남아산 김중석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43분 나온 무고사의 페널티킥 골로 2-1 승리를 거뒀다.

릿심을 발휘하면서 1위 독주에 속도를 낸 인천은 베스트팀에도 선정됐다. /김여울 기자 wool@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